익산시, 영농철 불법 소각 '제로화'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반 운영, 6월까지 홍보·단속 영농부산물·논·밭두렁 태우기 집중 점검 불법 소각 시 과태료, 농민공익수당·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제외

익산=고운영 기자

익산시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소각 제로화에 나선다.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지역 영 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6월 말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계획 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영농부산물은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로터 리 처리를 해야 하며 불법 소각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며 기 본형 공익직불금 감액과 각종 지원금 지급 제 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읍·면·동 통리장 회의, SMS, 리플릿 등을 통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과 소각금지 캠페인을 병행해 왔으며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방법과 처리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왔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소각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직불금 총액의 5% 감액됨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 업'을 추진해 영농부산물을 토양에 환원하거 나 축사깔개 등으로 활용할 경우 ha당 10-20 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밀과 보리, 귀리를 재배한 논 이모작 직불금 대상 농지는 지원받 을 수 있다.

시는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현장실사를 통해 불법소각 여부를 확인하고 9 월경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불법 소 각으로 적발됐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외되 며 향후 3년간 사업참여가 제한된다.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불법 소각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과 초미세먼지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영농 부산물, 논·밭두렁 태우기는 일부 해충을 없앨 수 있으나 천적이나 이로운 곤충도 함께 죽여 실질적인 방제 효과는 미비한 반면 미세먼지 와 산불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소각은 농촌 초미 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농민들의 많은 참여 당부드린 다"고 전했다.

김병열 도의원후보, 체류형 관광객유치 공약 제시

전북도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열 무소속 후보가 장수군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 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장수군의 관광사업 자원들을 연 계하고 확대해 체류형 관광사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야한다"며 "장계 논개생가지 일대에 수 련원을 건립하고 이와 연계한 승마장체험, 보 트체험, 골프체험, 과수농가와 협업된 사과·오 미자·토마토 체험, 자연을 활용한 서바이벌장 및 번지점프 등 전국의 고등, 대학생들이 지역 을 방문해 2~3일 정도 즐길수 있도록 홍보용 영상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고 장수군을 찾 아 올수 있도록 체류형관광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체류형 관광이 자리잡게 된다면 장수군의 농특산품 홍보는 전국적으로 자연



스레 될 것이며 지역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는 현지의 좋은 먹거리를 신선하고 저렴하게 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며 "관광사업과 농업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장

수군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관광사업을 활용한 농산물판매 비전을 제시했다.

/유기종 기자





"새로운 전북, 새로운 장수" 적극 지지 호소

김관영 도지사·최훈식 장수군수 후보자 합동연설회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기호1번 최훈식 후보는 25일 장수장날을 맞아 김관영 도지 사후보와 박용근 도의원후보, 군의원 후보 등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모두가 하나가 되 어 새로운 장수, 든든한 장수군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장수시장에서 가진 이날 유세에서 김관영 도지사후보는 새로운 장수와 새로운 전북을 강조하며 "최훈식과 함께 쌍두마차로 변화 와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최훈식 후보는 젊 고 깨끗한 준비된 군수후보다. 장수군민이 최훈식 후보와 민주당후보를 적극 지지해달 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최훈식 후보는 "지역소멸과 지역경제의 침체로 장수군과 군민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장수는 농업이 중심이다. 시설행정위주의 군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농업정책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군수를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사업으로 농산물안정기금 400억(연

100억원) 편성과 농민수당을 연 60만원에 점진적으로 150만원으로 확대지급 하겠으며 반값농기계를 실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복지를 확실하게 시행 하기위해 이·미용 컷트비용을 천원으로 모두 해결하고 65세 어르신의 무릎인공관절 수술시 1회에 한해 300만원 지급과 전기·수도 등 어르신의 생활민원해결사 '청년 맥가이버팀'을 운영해 어르신의 불편함을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의 장수를 위해 청년임대주택100호 건립과 청년발전기금100억을 조성해 청년 의 꿈을 만들고 아이들의 문화적 소외를 극 복하기 위한 도시체험과 문화스쿨버스 운영 및 문화바우처 연20만원을 지급해 아이들의 행복한 장수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바쁜 농사철에도 많은 군민이 참석한데 깊은 감사드리며 잘사는 장수 행 복한 장수군민을 위해 더 노력하여 군민에 게 실망시키지 않는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했 다. /유기종 기자

무주군 관광협의회 전국 사진공모전 연다

무주군 관광협의회가 제2회 전국 사진공모 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관광도시 무주군의 수려한 경 관과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재발견하고 우수한 경관사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무주군·무주문화원이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 은 전국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0년 이후 무주군 관광·문화자원을 소재로 촬영한 미발표사진(드론사진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응모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디지털사진(3,500x2,500픽셀이상 용량

5MB)으로 JPG 또는 JPEG 파일 형식이며 웹하 드나 이메일로 접수 하면 된다. 출품은 1인 5점 이내며 자세한 공모전 요

강은 무주군관광협의회 홈페이지(mujutour.



co.kr)를 참조하면 된다.

관광자원 발굴 분야는 기존 관광지와 새로 운 경관 및 참신한 관광자원을 발굴, 표현한 작품이다. 또 관광명소 분야는 덕유산, 구천동 33경, 부남 금강변, 안성칠연계곡, 태권도원, 무 풍사과단지, 향로산 등이다. /이형열 기자

정헌율 "정책 없는 토론" 유감

정헌율 후보 시민단체, 방송사 주관 지금까지 모든 토론 참석 비전과 정책보단 흠집내기, 음해와 비방 난무 '정치불신 초래'

더불어민주당 정헌율 익 산시장 후보는 "후보자 토 론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보다 흠집내기식의 음 해와 비방만 난무해 시민들 의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있 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나 더 유심을 표명했다. 특히 토론회 이후 일부

토론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정치불신을 야기함에 따라 정책과 비전이 담긴 구체적 정책토론이나 법정토론을 제외하곤 시민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방식의 선거운 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껏 진행된 TV 토론과 라디오, 유튜브 토론 등 단 한 차례도 토

론을 거부하지 않고 성실히 임해왔다"면서 "그러나 대부분 토론이 정책이나 비전보다 상대방 흠집 내기가 많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책과 비전보다는 상대방을 흠집 내거나 인신공격성 발언 수위를 높이는 토론은 시민들의 정치불신과 혐오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유권자와 접촉을 늘려가며 정책을 발표하 는 방식의 선거운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 후보는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부터 정책선 거, 클린선거, 축제같은 선거를 외쳐왔지만 뜻대 로 되지 않아 시민들께 죄송스럽다"면서 "남은 선 거기간이라도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는 마음을 담아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정책선거 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운영 기자

장영수, 장수형 '부모 급여' 도입 공약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는 장수형 부모 급여를 도입, 시행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시행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장 후보가 발표한 장수형 부모 급여는 정부 지원에 장수군 예산을 더하는 이른 바 원 플러스 원 공약이다.

내년부터 장수군 출생 0~11개월 아동에 대해 부모 급여 정부 지원금 70 만 원에 장수군 예산 70만 원을 더해 월 140만 원 씩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2024년에는 정부 지원금 포함 월 200만 원씩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장 후보는 군립 산후조리원 설립을 공약하는 등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 및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장 후보는 이에 따른 소요 재원을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등을 활용한다는 구체적 예산계획을 제시했다.

장 후보는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라는 장탄식을 넘어 벚 꽃피는 순서대로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 려면 선제적 대응 노력이 절실하다"며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등을 활용한 다양 한 정책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기종 기자